

예술로 잇기: 포용적 장애예술교육 실행연구*

** 윤보경, 장웅조 ***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선행연구 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실행 및 분석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본 연구는 2022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 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주) 문화마루 대표

*** 교신저자: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부교수

논문투고일: 2024.01.30

논문심사일: 2024.01.30

게재확정일: 2024.03.02

Connecting through the arts: an action research on inclusive disability arts education

Yun, Bo-kyung · Munhwamaru social art company, Chang, Woong-jo · Hongik University

In this action research, we explored the practices of inclusive arts education through collaborative exchanges between artists with disabilities and non-disabled artists. Our approach, rooted in the philosophy of inclusive arts, emphasized the unique identities and diversity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he study followed a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methodology, involving stages of research, implementation, reflection, and recognition. Observations revealed that artists with disabilities embraced their artistic experiences, immersing themselves deeply, discovering their unique identities, and internalizing the experiences positively. The collaborative process also allowed non-disabled artists to confront and reassess their previous discriminatory beliefs and negative preconceptions about disability, broadening their creative horizons. Our findings highlight the potential of artistic interaction in a non-face-to-face setting, underscoring that the success of such interactions hinges not on technology, but on the embracing of the 'inclusive arts' educational philosophy.

<key words> inclusive arts education, disability, collaborative creativity, action research, artistic interaction

<주요어> 포용적 예술교육, 장애, 협력적 창의성, 실행연구, 예술적 상호작용

I / 서론

최근 들어, 장애 극복이나 사회적응의 한 방법으로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다루는 이전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장애를 더 이상 결핍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개인의 독특한 고유성으로 인정하는 포용적 예술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장애예술인 관련 연구와 현장의 실천은 이렇게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지 못한 채, 장애예술인 고유의 예술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존 비장애예술인들의 예술적 방법론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현정, 2015; 반호정, 2015; 심정민, 2023; 전지영,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애예술인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예술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예술교육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연구-실행-반성-재인식’의 순환적 과정을 반복하여 거치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 방법론을 도입하여, 참여한 장애인 및 비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경험 과 그들의 인식변화를 추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장애인들이 주체가 되어 비장애예술가들과의 교류를 주도하고,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며, 포용적 예술에 대한 의미를 반추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예술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예술적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장애예술교육의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 선행연구 고찰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년)되면서 정책적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화예술계에서는 다양성을 기반한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에 주목하고 있다(김경민, 2022; 김지원, 2020; 박신의, 장용조, 이민하, 2020; 김아롱, 조은숙, 2021 등).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0)는 장애를 사회적 낙인, 동정, 자선의 대상화로 인식하여 존엄성과 권리의 존중보다는 사회참여와 생산활동의 능력이 없다고 간주해왔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후 이러한 부정적 사회적 통념과 편견들을

비판하고, 장애인이 가진 가능성을 통하여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를 모색하는 연구들이 늘어났다(유용식, 2005).

김원영(2018)은 장애인을 비정상적으로 결여된 존재가 아니라 개개인의 고유성을 가진 존재임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접근은 포용성(inclusiveness)의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포용적 예술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소수집단들과 관련된 예술적 창의 활동과 미학적 전략을 포괄하는 용어이다(Austin et al., 2015; 박신의 등, 2020). 2006년 이후, 영국에서부터 통용된 포용적 예술은 현 사회 제도하의 소수차별에 대항하기 위해 주장된 개념으로 사회적 배제의 상대적 이념을 담고 있다. 장애가 해결하거나 지양해야 할 문제가 아닌 개인과 공동체의 자산 혹은 자본으로 인정하는 관점으로 이해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장애예술 정책기조를 반영하는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정종은, 최보연, 2021). 포용적 예술에서의 문화다양성은 “궁극적으로 인종과 민족, 신념, 장애, 연령, 성, 성적 정체성, 계층, 저소득층, 사회적 제도적 장애 등 문화예술 참여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초월하려는 실천적 의지로 제시”(박신의, 심규선, 주병진, 2018:43)된다. 특히 영국은 ‘교육을 위한 창조적 파트너십 정책(creative partnerships policy for education)’을 주요 정책의제로 삼고, 포용적 예술 개념을 기반으로 특히 “장애인 창작자들과 장애인 관객들에게 예술 창작 및 향유에 대한 접근성(access)을 높일 수 있는 정책”(안채린, 2020:108)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가 ‘모두를 위한 위대한 문화예술(great arts and culture for everyone)’을 미션으로 설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장애를 또 다른 언어로 간주하는 문화다양성의 구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박신의 등, 2018).

일견 한국에서도 개개인 고유의 존엄성, 독립성, 그리하여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예술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계에서는 장애가 새로운 예술 언어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김아롱 등, 2021).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들이 예술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제반 여건은 불비하다. 정부에서는 혁신적 포용 국가에 필수적인 문화정책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강조하였으나(안채린, 2020; 정병은, 2016) 장애예술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구상을 위해 참고할 만한 연구조차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정종은 등, 2021), 그나마 있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자 활동을 장려하기보다는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조현성, 최보연, 정병은, 전동일, 김윤경, 2020).

선행연구들은 포용적 예술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예술적 성취를 높여줄 방법으로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업을 제시하고 있다(박신의 등 2018,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8). 특히 예술 장르 중에서도 무용은 신체의 움직임을 구현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몸을 배제시키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지적하고 있다(김현정, 2015;

홍혜전, 2020). 장애를 우월한 정상 상태에 비하여 열등한 비정상, 또는 자연스럽게 않은 부자연스러움 등으로 구분 지어 차별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며, 비장애 예술전문가가 장애인을 반복적으로 숙련시켜 무대에 세우는 관행을 지속해왔다. 장애예술이 주류 예술계의 하부구조로 배치되는 이러한 상황을 장애예술인이 적극적인 예술의 창제작 주체가 아닌 단지 배려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장애의 타자화 현상”(전지영, 2021:200)으로 보았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창의적인 협업 구조의 예술교육이며, 이를 통해 이루어 낸 예술적 성취가 포용적 예술교육의 핵심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장애예술프로젝트에 참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예술경험에 관한 실행연구이다. 실행연구는 실천적 이해를 창출하거나 연구대상에 대한 심층적인 관찰이 가능한 관찰연구방법(Merriam, 2009)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변화와 예술적 성취과정을 훑아보기에 적합하다. 연구자가 현장에 함께하는 참여형 연구방법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성과 보완을 통한 재계획이 가능하다. 따라서 탐구의 결과는 물론 연구 과정 자체에 큰 의미를 둔다(윤보경, 장웅조, 2021). 특히 교육 현장의 과정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고 연구자가 직접 운영과 수행과정에 개입하여 반성과 환류(feedback)를 통해 더 나은 개선점을 찾는 데 유용하며, 참여자들의 인식변화 관찰이 가능한 연구방법이다.

실행연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설정된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제에 당면한 당사자들과 함께 연구하여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실행한다. 실행 후, 그 과정과 결과를 함께 성찰하고 개선을 위한 실천 계획을 재수립하는 계획-실행-성찰-재계획의 4단계의 과정을 반복해 나간다(이용숙, 김영천, 이혁규, 김영미, 조덕주, 조재식, 2005; Kemmis et al., 1998). 이러한 단계별 과정에 따라,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부터,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관찰, 면담, 문헌 데이터까지 수집하고 기록한다. 동시에 분석을 진행하고 인식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해결책을 다시 반영하여 재실행하고 결과를 도출한다. 이렇게 문제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수정하여, 실행하는 반복된 과정을 참여자들과 함께 진행하고,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변화와 개선을 도모하기에 효과적이다.

1. 1단계 : 연구 및 사전 조사

1) 국제협업 실행연구 추진배경

지난 2020년부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범유행의 여파로 많은 예술교육과 공연사업들이 무산되었고,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하여 가장 먼저 분리, 격리되었던 장애인의 예술 접근성은 더욱 떨어졌었다. 많은 공연장과 전시장이 문을 닫았지만, 정부의 직접적 지원은 오히려 늘어난 측면도 있었다. 이에 완성도가 다소 부족했던 실험적 활동들이 오히려 그 과정의 시도만으로도 지원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관객들을 직접 만날 수 없다는 물리적 제약 속에서도 예술가들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예술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관객과 소통하기 위한 기회를 찾게 되었다. 특히 디지털을 이용한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예술이 시간과 장소라는 물리적 한계에 구애받지 않고 관객에게 전달 가능하다(윤보경 외, 2021)는 것을 많은 예술가들이 직접 체험한 것은 큰 성과였다. 이에 힘입어 예술교육자들도 다양한 비대면 예술교육 사례를 만들고 이를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앞서 언급한 적정기술에조차도 그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다 면밀한 현황파악과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장애예술을 연구하는 국내외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예술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비대면 장애예술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다.

2) 실행연구 대상

장애인 주도의 협력적 국제 교류 워크숍(Collaborative and Disability-led International Exchange Workshop, 이하 CDIEW)은 코로나19 범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4월-5월에 진행된 장애예술 국제교류프로젝트로서, 장애예술교육의 운영경험이 있는 세 개의 단체가 함께 주최하였다. 교류국가 는 대한민국과 호주였으며, 서울, 청



그림 1. Collaborative and Disability-led International Exchange Workshop 홍보용 제작 포스터

주, 애들레이드에 위치한 세 곳의 예술공간에서 대면과 비대면 동시워크숍을 추진하였다. <그림 1>은 참가자에게 배부된 안내 요강과 일정에 대한 포스터이다.

주관자로서의 기획단체는 애들레이드에 소재한 남호주대학교(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Business School)의 장애인지원학술단체인 ‘코넥트2어빌리티(Connect2Abilities)’이며, 공동운영단체는 호주의 장애주도연극단체 ‘노스트링스(No Strings Attached Theatre of Disability)’와 한국의 사회적예술기업 ‘(주)문화마루’이다.

한국호주재단(Australia-Korea Foundation)의 후원을 통해 본 프로젝트를 기획한 ‘코넥트2어빌리티즈’는 남호주대학교의 장애인지원학술단체로서 예술협업을 위한 국제교류플랫폼을 제공해 온 학술단체이다. 양국의 장애 예술 종사자와 예술가 사이에 예술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기반마련을 운영과제로 삼았다. 공동운영단체로 참여한 호주의 ‘노스트링스’는 1994년 애들레이드에서 장애 예술인들에 의해 설립된 독보적인 비영리극단이다. 이들은 장애가 있는 공연자들에게 전문적인 멘토링을 제공하며, 장애인과 예술가가 협력하여 장애주도의 공연을 창작하는 크리에이티브 프로덕션이다. 한국의 공동운영단체인 ‘문화마루’는 2013년 설립된 사회적기업으로 예술프로보노¹⁾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왔으며, 다년간 성인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무용프로그램을 수행해 온 예술교육기관이다. 충북지역 내 장애인복지협회 및 장애인시설과의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청주와 서울, 경기도에 예술교육과 소공연이 가능한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 모집은 운영단체에 속해 있는 장애인을 비롯하여 장애단체나 복지시설 등의 홍보를 통해 장애유형에 제약을 두지 않고, 예술경험을 원하는 희망자를 추천과 자원으로 모집하였다. 참가제한을 두는 것은 또 다른 구별 짓기로서의 차별적인 경계를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을 우려하여 예술경험을 원하는 모든 이들의 참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본인의 의지와 의사 표현이 가능한 발달장애인과 아스퍼저증후군(asperger syndrome), 외부신체기능장애인, 지체기능장애인이 함께 참여했다. 한국과 호주에 거주하는 10인의 장애인과 5명의 예술가, 1명의 기획자, 2명의 공동운영자, 4명의 필름디렉터가 모였다. 공동운영자 중 1인은 예술가로서 직접 활동에 참여하여 관찰하며 진행을 도왔는데, 그를 포함한 총 2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프로젝트에 개입되지 않는 관찰자 1인이 프로그램 진행을 관찰 후에 온라인서평을 남겼다.

¹⁾ 라틴어 문구인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의 약어인 프로보노는 공익차원의 법률서비스에서 유래되었으며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이를 활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의미한다(구교만, 2020; 심미승, 박지현, 2016). 예술계에서는 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공익적 성격의 재능기부에 대한 통용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한국의 참여장애인은 학교예술교육 외의 본격적인 예술 창작작의 경험이 없었던 반면, 호주의 참여장애인들은 노스트링즈 연극 단원으로 예술공연 경험이 있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비장애예술가들은 무용과 연극, 연출을 전공하였으며 호주와 한국에서 예술교육에 대한 다수경험이 있다.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참여자 인구통계학적 정보

참여자 인구통계학적 사항												
구분	여	남	거주 지역	서울	서울외	호주	장애 구분	정신적장애	신체적장애	비장애		
	17	5		7	7	8		9	1	12		
연령	10 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		6		12		3		1		-	
활동 장르	무용		연극		연출		공연 경력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이상
	5		5		2			4		2		6

3) 연구설계

실행연구는 연구대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한 연구방법으로서, 설정된 연구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점을 찾아가는 연구과정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다. ‘계획-실행-반성-재인식’의 순환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기본적 순환적 사이클에 기초한 본 연구의 연구설계도는 <그림 2>와 같다.

1단계에서는 현장취재, 문헌연구 등의 자료수집과 참여자들의 사전 인식조사를 시행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예술이 갖는 사회적 쟁점과 문제를 점검하여 연구문제를 도출하였고, 그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프로젝트를 준비하였다. 2단계에서는 구성된 프로젝트의 실행과정 중 일어나는 참여자의 인식변화와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면밀히 관찰하고 면담, 인터뷰를 통해서 모니터링하였다. 동시에 인식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1-2단계의 [Cycle 1]의 과정을 거쳤다. 이 단계에서는 참여자가 연구대상임을 밝히지 않는 상태로 영상으로 기록하며 관찰하였다. [Cycle 1]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행한 3-4단계는 [Cycle 2]를 구성한다. 3단계에서는 참여자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를 재실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찰과 피드백을 공유하며 실행과정 중에 일어나는 반성적 성찰을 기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가 운영과 수행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프로젝트의 교육현장에서 보완과 수정을 시도하였다. 마지막 4단계에서 연구자와 참여자는 관찰과 반성, 개선과정을 반복하며 구성된 일련의 사이클을 통해 참여자들의 변화된 인식을 확인하고 성과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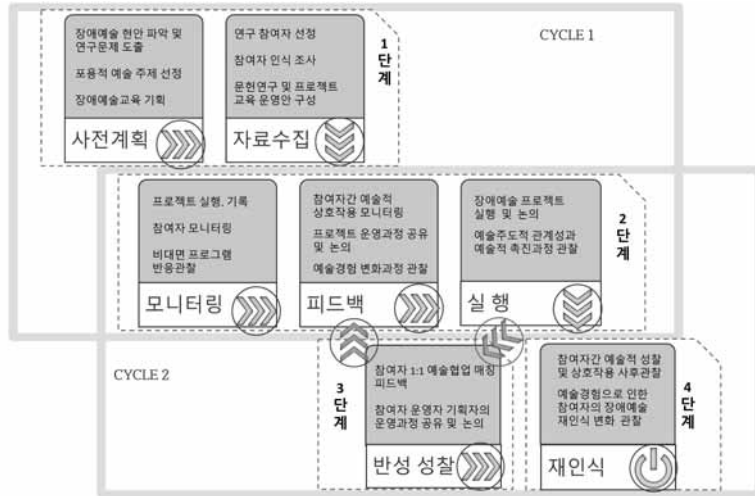


그림 2. 실행연구 연구설계도

4) 실행연구 일정

한국과 호주의 국제교류로서 프로그램 실행일의 한 달 전부터 매주 프로젝트의 운영을 위한 논의와 비대면 제작 회의를 진행하였다. 장애예술교육의 경험이 있는 참여예술가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참여가능한 비언어적 표현중심의 장애주도 예술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연구실행을 위한 세부일정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실행 세부일정

단계별 세부일정	추진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한국 비대면예술교육 사전 기획 회의 - 장애예술교육 연구문제 도출, 추진계획 및 실무자 협의 및 보고회 - 포용적 예술, 장애예술 자료수집 및 기본계획 수립 - 참여장애인 및 참여예술가 모집 및 선정 사전인식 인터뷰 - 프로그램 운영진, 기술 스텝 섭외 -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범시스 논의 및 작성 	<p>1단계 cycle 1 2021. 02-03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한국 예술교육 실무협의자 비대면기획 회의 및 추진상황 공유 - 비대면 영상송출 테크니컬 테스트 - 공동 주최주관 프로그램 1, 2차 진행 : 1차 (2021.04.17), 2차 (2021.04.24) 프로그램 진행 - 프로그램 수정·보완, 모니터링, 프로그램 내 장애인, 예술가 매칭 강화 - 비대면 영상송출 테크니컬 테스트 온라인플랫폼 매체 선정 - 영상디자인 및 영상, 배경음악 컨셉 회의 	<p>2단계 (Cycle 1) 2021. 04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협의회 운영회의 :프로젝트 진행 후 예술경험 공유 - 장애인 및 참여무용가 중간 인식조사 인터뷰 - 프로그램 수정보완 모니터링 - 공동 주최주관 프로그램 3차 진행 (2021.05.01) - 프로그램 후 출연자 네트워킹 미팅 및 영상감독 영상제작 회의 - 예술경험 과정 스케치 영상제작 온라인송출 	3단계 cycle 2 2021.04-0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 정책제언 및 예술포럼 발제 (2021.11.22) : 장애예술교육 가치 모색과 전략제언, 한국과 호주 사례발표 - 참여장애인, 비장애예술가 쇼케이스 공연 (타이틀: 붉은인연) - 호주 및 한국 결과영상 송출 및 결과공유회 - 장애 예술국제 교류 영상 온라인플랫폼 공유 - 장애인과 참여무용가 사후 인식조사 인터뷰 - 사전, 사후 인식변화 모니터링 피드백 	4단계 (Cycle 2) 2021.05-11월

2. 2단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예술경험의 실행

1) 국제협업 실행연구 추진배경

2021년 4-5월, 3주간에 걸쳐 1차(2021.04.17.토), 2차(2021.04.24.토), 3차(2021.05.01, 토)로 한국과 호주에서 동시 실행되었다. 다른 국가의 문화와 예술교육을 접목하도록 호주와 한국이 번갈아 1회씩 워크숍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마지막 차시의 워크숍은 양국이 공동주최하였다. 프로그램의 형태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였다. 도시별 3곳의 교육현장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만나 대면의 형태로 진행하였고, 워크숍의 현장 간에 비대면으로 연결하였다. 국가 간, 도시 간의 거리에 따른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프로그램 실행 전 기술점검을 거쳤다. 이러한 비대면 소통을 통해서도 예술적 교감이 가능한가에 대한 관찰도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던 장애와 인종, 언어의 장벽을 넘어 참여자들이 예술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관찰하였다.

프로그램은 한가지 예술장르로 고정할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일으키는 다양한 예술적 요소를 수용하고 체화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에 국한되지 않고 몸의 방향, 속도, 이동, 비이동, 힘의 조절, 강약, 고도 등의 신체의 다양한 움직임의 요소를 응용하여 다각도로 경험해보는 것을 제안하였다. 워크숍 프로그램의 진행 일정은 <표 3>과 같다.

표 3. International Exchange Project between Korea and Australia workshop Schedule

Meeting	일시	프로젝트 구성
소개	2021년 4월 15일 (목) 10:30am	프로젝트 개요 단원 소개 질문 및 토론 및 영상기술점검
workshop 1	2021년 4월 17일 (토) 2pm-4pm	1시간 30분 (1.5hr) Workshop 노스트링스 워크샵 주도진행 문화마루, 노스트링스 공연자 참여
workshop 2	2021년 4월 24일 (토) 2pm-4pm	1시간 30분 (1.5hr) Workshop 문화마루 워크샵 주도진행 문화마루, 노스트링스 공연자 참여
workshop 3	2021년 5월 1일 (토) 2pm-4pm	1시간 30분 (1.5hr) Workshop 노스트링스 & 문화마루 공동진행

학교예술교육외의 본격적인 예술 창작작 경험이 없는 한국의 참가자들을 위해 자신의 일상적 행동에서 비롯된 동작들이 창작으로 연결되어 춤이 되는 창작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희망, 열망, 불안정, 추억 등의 감정의 증폭이 가능한 시놉시스 synopsis를 바탕으로 예술적 경험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예술적 파트너를 매칭하여 창의적인 협업 구조를 구축해가는 과정을 추적 관찰하였다.

3. 3단계 : 반성과 성찰

1) 장애주도의 예술적 촉진과정의 성찰

실행연구에 참여한 비장애예술가와 참여장애인은 <그림 2>의 Cycle 1 과정을 실행한 이후 반응을 피드백하였다. 특별히 비장애예술가들에 대해서는 신체기능향상의 치료적 목적에 중점을 두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학습형태를 탈피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술적 발현을 촉진하는 전략적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게이미피케이션 gamification, 스토리텔링 storytelling, 즉흥(improvisation), 모방(modeling)과 미러링 mirroring, 연결성(connection) 등의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요소를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재설정할 수 있었다.

교육 구성의 도입부에서 움직임의 활력을 높여주기 위해 기존의 게임의 규칙을 허물고 새로운 규칙을 재정립하였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긍정적 행동 전략인 게이미피케이션이 활용되었다. <그림 3>과 같이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담은 게임을 선정하여 의도적으로 일련의 규칙을 제시하였는데, 변형된 규칙들에 의해 몰입이 높아져 동기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었음(배유나 박수홍, 2022)을 참가자들의 반응을 통해 확인하였다. 장애예술가들은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워밍업이 모든 참가자들

의 긴장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답했으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적 방법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림 3. 워크샵 중 게이미피케이션 실행장면 (출처: YouTube 송출장면 저자 편집)

스토리텔링은 의미전달은 물론 주제나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나누는 행위로서 새로운 깨달음, 재미, 흥미, 공감에 가치를 두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이수곤, 2018; 원경아, 2009; 이상민, 2009). 참여자 간에 ‘나’를 중심으로 개인적 서사를 창작의 소재로 삼아 예술적 공감을 시도하였다. 일상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정체성을 창작적 몸짓에 투영하였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몸의 움직임으로 만들어낸 예술경험을 특별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참여자들 간에 서로 환대하며 존중받았던 예술적 경험을 예술을 즐거운 행위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예기치 않은 순간에 발생하여 반사적인 반응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즉흥적인 움직임이 많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잠재된 역량이 몰입을 통해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형식없는 동작들로 자유롭게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가 가지는 고유성이 의도하지 않은 즉흥적인 움직임과 함께 자연스럽게 나타나면서 순수한 감흥에서 비롯된 매우 창의적인 동작으로 발현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즉흥적이고 창의적인 찰나의 움직임들이,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연결성을 갖고 체계성을 갖춰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미러링을 통해 참여장애인은 예술가들이 가진 예술적 감수성을, 비장애예술가들은 장애가 지닌 고유성을 서로 모델삼기(modeling) 시작했다는 점이다. 차지은(2022)은 움직임이 모방에서 시작되며 창의적 표현의 중요 요소로

꼭고 있다. 참여장애인들은 매칭된 예술가를 모방하면서 예술적 접점을 만들어 내었으며, 매칭된 파트너간의 신뢰가 커질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모델삼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참여자들 간의 연대감이 높아졌다는 것을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협력적 창의성에 기반하여 감정과 에너지를 교류하는 것이 창작활동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이후, 앞선 과정에서 창작한 동작을 기억하고 응용하며 이를 다시 여러 형태로, 형식으로 확장해갔으며 창작과 모방이 혼재된 동작들이 늘어나면서 참여자 각자가 점차 주도성을 갖게 되었다. 1-2회 차 실행 시점에서는 무조건적인 모방이었다면, 3회 차 실행 시점에서의 참여자의 움직임은 단순히 유사성을 띄는 행동보다는 목적과 주도성을 갖는 의식적 모방(conscious imitation)²⁾의 형식으로 변화하였다. 공감할 수 있는 행동으로 신뢰와 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을 카멜레온 상호작용(chameleon effect)으로 설명(Chartrand et al, 1999) 할 수 있는데 매칭예술가와의 협력적 교류과정에서 이같은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창작과정에서 상호연결성이 부각되었다. 프로그램 실행 이전에는 기획자의 통역을 통해 간단한 의사전달은 가능하지만,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비롯하여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참여자들 간의 정서적 관계 맺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화면 너머로 전달하기 위해 눈빛 교환, 밝은 표정, 제스처, 에너지를 주고받는 액션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며 서로 독려하였고, 언어, 거리 등 물리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스크린 속 상대방에 집중하며 교류하려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공간은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정서적 공감을 깊이 느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의도와 감정을 담은 신체적 사인과 액션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었으며,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려 노력하였다. <그림 4 참고>



그림 4. 한국참여자와 호주참여자와의 비대면소통장면 (출처: 저자 직접 촬영)

²⁾ 의식적 모방이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따라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에서 비롯되며 미러링은 행동 중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종종 눈에 띄지 않게 된다는 전제하에서 의식적 모방과 구별된다.

2) 장애와 비장애의 매칭과 창의적 협업(collaboration)

본 실험연구는 <그림 5>에서처럼 포용적 예술의 핵심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력적 창의성'과 '예술적 상호작용'을 위한 관계구도를 매우 중요한 필수적 요소로 보았다. 협력적 창의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참여장애인과 비장애 예술가를 1:1을 매칭하였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장애와 예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제공하였음을 발견하였고, 점차 그 관계성에 주안점을 두면서 Cycle 2에서는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수정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창작을 직접 경험한 장애인은 협력적 창의성을 위한 매칭관계로 인해 우호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였고, 비장애예술가들은 매칭으로 인해 예술적 합의가 상대적으로 원활한 편이었으며, 예술적 교류를 위한 긍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무엇보다 비장애예술가들의 인식변화가 뚜렷이 드러났다. 참여장애인을 장애 협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을 배려해야 할 약자로 점차 의식하지 않게 되었고,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는 주도적 주체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그들은 장애가 갖는 고유하고 특별한 감각에 주목할 수 있었으며, 오히려 장애를 수용해가면서 창작적 발판을 넓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고 증언하며, 장애와 비장애 참여자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악을 들었지만 각기 다른 생각을 하며, 다른 동작으로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교류가 가능하였다고 답하였다. 참여자들은 협업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다양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나와 다른 존재를 인식하고 교류하면서 장애 자체를 표현의 언어로 인정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림 5. 참여장애인과 비장애예술가의 1:1 매칭 협업(Creative collaboration) 실행장면
(출처 : www.youtube.com/@user-on8sw1ws8u 송출장면).

4. 재인식 및 사후조사

1) 참여장애인의 변화

(1) 장애주도 예술경험의 내재화

참여장애인은 자신에 대한 표현과 예술적 교류에 집중하며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창작과정에 진지하게 몰입하면서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장애가 예술경험의 걸림돌이 되거나 불편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다양한 예술적 언어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증언을 통해 확인하였다. 결국, 참여장애인은 예술 창작자 경험을 통해 자신이 지닌 장애를 특별하고 고유한 개인적 특성으로 드러내면서 타인과 예술적 교감을 긍정적으로 내재화하였다.

“나의 춤이 멋지다고 해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엔 긴장했어요. 지금은 더 많이 춤을 배워보고 싶어요.”

“우리는 이전에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디지털기술이 있었음에도 사용해보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우리는 전보다 더 열린 시간을 보냈어요.”

“목소리를 크게 낼 필요 없어요, 스크린으로도 감정과 리액션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2) 장애정체성의 예술적 발화

참여장애인은 개개인의 삶의 여정과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예술적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익숙하지만 특별했던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기 위해 창작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비장애예술가와 예술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기이해의 폭을 확장해나간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운영 내내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소통했던 일련의 과정과 특별한 예술경험이 장애정체성의 예술적 발화과정에 영감을 준 것이다.

“나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을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하며 춤으로 만들어서 좋았어요.”

“다른 나라의 문화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어떤 면이 다른지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나의 꿈은 바리스타예요. 내가 커피를 만드는 모습을 생각하고 나눠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춤으로 만들었어요.”

(3) 긍정적 유대관계를 통한 장애다양성의 수용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장애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호기심과 탐색의 의지가 높았다. 예술적 신뢰를 통한 유대관계를 맺은 결과, 예술을 통해 친구가 생겨 기쁘다고 표현했으며, 기회가 되면 무대에 서고 싶다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단기적 예술경험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예술협력과정이 예술적 성취를

높여줄 수 있다고 증언하면서 예술교육의 지속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참여장애인들은 자신의 예술적 경험에 대한 실연實演 의지가 강했고 이를 기획자들에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 비대면의 소통으로 끝내지 않고 프로젝트 초기에 기획하지 않았던 대면 공연의 형식을 갖춘 쇼케이스showcase를 진행하였다. 예술적 협력구조가 실제 공연화까지 연결되면서 또 다른 예술경험을 만들어 내었는데, 실험적 무대였지만 실제 공연을 경험한 참가예술인은 ‘예술은 나를 멋있게 표현하는 재미있고 즐거운 것’으로 명확히 인식하였다.

“다른 나라에 친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불가능하리라 생각했어요, 근데 봐요, 잘됐잖아요! 수진의 손동작을 따라 하니 수진이 즐거워했어요. 그 동작 하나로 우리는 통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참 재밌었어요, 진짜로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림 6. Collaborative and Disability-led International Exchange workshop
(출처: YouTube 송출장면)

2) 참여예술가의 변화

(1) 장애예술의 긍정적 인식의 변화

연구 초반에 프로젝트를 구상하면서 비장애예술가들은 장애를 가진 몸에 대하여 움직임의 범위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했으며, 장애로 인해 동작과 표현이 부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특히, 사전 인터뷰에서 장애를 배려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점, 비장애예술가들이 특별한 사명감, 또는 열정과 의지가 높아야만 장애예술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경험하지 못한 장애에 대한 두려움 등을 실제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종료 후, 비장애예술가들의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긍정적으로 확연히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현정(2015)은 장애인의 다양한 예술언어가 존재함을 강조하였는데, 참여예술가들은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되었음을 진술하였다. 본 연구의 예술경험이 추후 장애예술에 대한 방향 설정과 상생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주었음을 인정하였고, 장애예술에 대한 폭넓은 성찰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장애인의 예술적 역량과 가치, 주체성을 드러내는 예술교육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다.

“장애인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이라 조건 없는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렸어요. 우리는 무엇을 제공하거나 도움을 준 게 아니라, 함께 예술적 교감을 했어요.”
“나의 정체성은 타인이 규정할 수 없어요, 타인의 정체성도 내가 규정할 수 없지요. 현재 상황과 장애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아요.”

(2) 장애를 넘어선 예술적 상호작용의 강화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와 예술적 교감을 나누는 예술파트너로서 협력관계가 가능했다고 증언했다. 참가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창조적 협업에 의한 쌍방향적 소통과 우호적인 예술적 상호작용이 주요 요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비장애예술가들이 프로젝트 초반에 느꼈던 장애에 대한 부정적 단면과 예술적 우울감에 대한 자기반성을 끌어냈다는 것이다. 고무적인 것은 참여자들의 긍정적 인식의 변화가 포용적 예술로의 장애예술교육을 확장해야 한다는 도전적 자세를 갖게 했다는 것이다. 박신의 등(2018)는 풍부한 예술경험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전제하는데, 이번 프로젝트의 예술경험이 장애의 정체성이 예술적 스펙트럼을 보다 넓혀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장애예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활동에 대한 철학적 방향성을 다시 설정하고 실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남을 이루는데 장애로 구분 짓는 사회적 기준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삶의 일부분을 공유하며 나는 그들의 이야기가 재미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을 드러냄에 망설임이 없었고 매우 진지해서 우리 모두 쉽게 몰입했어요.”
“우리가 장애를 경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의 불편함이라 규정하던 것들이 장애 당사자에게는 그냥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3) 소통채널의 다양화에 대한 장애예술의 대응의식

장애인과의 교육 활동에 지속적인 소통 채널로서 비대면 프로그램이 가능한가에 대해 한국의 참여예술가가 모두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다. 비장애예술가들은 사전 인터뷰 시, 예술교육의 비대면 교육형식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었다. 대면에 비해 비대면 교육형식은 현장성이 떨어지며, 신체적 접촉으로 얻을 수 있는 친밀감이 결여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매회 물리적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비언어적 예술의 본질을 전달하기에 비대면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제대로 된 소통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적정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신을 통해 무리 없이 적응하는 참여자들의 모습이 관찰되었고, 오히려 장애예술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다. 참여예술가들은 장애예술이 기존의 방식과 달라진 비대면 교육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는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비장애예술가들은 지역의 예술환경 불균형의 해결책으로 비대면 소통이 지역적 제약을 극복할 수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였다.

비대면 교신 기술이 상용화되고 가속되는 디지털화가 맞물린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의 역할에 대한 논의(류정아, 2022)가 여러모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현욱 외(2022)은 우울증, 경계성 지능장애, 자폐스펙트럼 등의 보다 넓은 범위의 장애를 대상으로 디지털 관련 연구와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 교육으로의 재구조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디지털화로 교육적 시도를 경험한 참가자들은 현장성을 강조하던 예술교육에서 대면의 제약과 물리적 거리의 어려움을 넘어서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 기획자들은 특히 장애예술의 영역확장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는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예술교육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예술가들의 에듀케이터educator로서의 역할확대를 논의하였다. 참여예술가들은 또한 장애의 고유성을 통한 협력적 창의성과 예술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양질의 장애예술 에듀케이터 양성이 필요하다고 동조하였다. “고정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다양한 해석을 존중하고 교육적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조력자로서 역할”(이지영, 2013:6)이 중요하다. 아울러 교사(teacher)보다는 폭넓은 의미의 예술교육자로서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과 협력, 상호 간의 문화교류 등에 가치를 두는 창의적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용 역량도 습득해야 함을 인정하였다.

“우리는 만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만났어요. 더군다나 즐겁기까지 했어요. 미래를 위한 아이디어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주고받고자 했던 에너지가 방해받지 않고 전달되었어요, 감정전달이 어려운 것만 같던 비대면은 우리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었어요. 물론 직접 만나 반갑게 안아주고 싶긴 해요.”

본 연구는 한국과 호주 간의 장애예술교육을 위해 진행된 국제교류 프로젝트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예술경험에 대한 실험연구이다. 특별히 장애를 개인의 고유성으로 보아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예술을 기반으로 ‘연구-실행-반성-재인식’이라는 참여적 실험연구의 순환단계를 밟아가며, 비장애예술가들과 참여장애인과의 창의적 협력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예술경험의 성취과정을 훑아보았다.

참여자들의 장애예술 성취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장애예술가와 장애참여자의 창조적 협업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러한 상호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기존의 장애를 결핍과 열등으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를 의식하지 않고 타인의 문화다양성을 수용하면서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장애가 예술적 소통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넘어서 장애와 비장애의 예술적 협력구조를 이루었고, 장애를 미학적 감각의 언어로 인정하는 인식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참여장애인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예술경험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예술 행위에 몰입하고, 주도적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발견하였으며, 새롭고 즐거운 경험으로 내재화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비장애예술가들이 이전의 장애에 대해 가졌던 차별적 선입견을 돌아보고 장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창작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음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그들이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통해 장애예술에 대한 교육방법론을 확장해가며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었음도 확인하였다. 장애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교류와 예술적 교감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증언에 따라, 앞으로의 장애 예술교육이 추구할 본질과 가치에 대하여 충분히 탐색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전과 사후 인터뷰를 비교한 결과, 비장애예술가는 장애를 고유한 표현의 언어로 간주하게 되었고, 장애인을 배려의 대상에서 신뢰하는 예술적 파트너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변화를 보였다. 오히려 비장애인이 경험하지 못한, 장애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은 개인의 미학적 표현의 언어로 인정되어 새롭게 장르화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예술 질서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으며 장애예술인이 적극적인 예술의 창제작 주체가 되도록 예술적 성취 방향을 고민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이번 비대면 프로젝트의 다양한 긍정적인 성취는 추후 비대면 교육이 대면 교육의 일시적인 대안이 아닌 문화예술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될 사회적 상

황을 고려할 때, 예술교육자를 비롯하여 장애인도 다양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에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경험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세분화된 특정 장애의 유형에 맞춘 프로그램이기보다 예술을 경험하고자 하는 정도의 장애인이 참가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유형의 중도 이상 장애인들의 필요와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본 연구에서 강조한 포용적 예술의 교육적 실천 방향과 장애예술의 가치를 구현할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장애를 포함한 다양성을 극복, 열등, 결핍으로 대상화하지 않고 주체적 존재로 인정하는 다양한 후속 연구를 통해 극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구교만(2020), “장애인 스포츠를 위한 프로보노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 **한국사회체육학회 80**, 361-371.

김경민(2022), “포용적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영상 콘텐츠 안에서의 배리어프리 연구”, 상명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 **문화예술융합연구 3(1)**, 43-53.

김아롱, 조은숙 (2021), “포용적(Inclusive) 접근의 무용예술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 교육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 **무용예술학연구 84(4)**, 35-49.

김재웅(2016), “애니메이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에듀케이터로서의 문화예술교육사 역량 연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45**, 235-258.

김지원(2020), “포용적 미술관에서 포용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연구”, 한국문화교육학회, **문화예술교육연구 15(2)**, 135-161.

김원영(2018),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파주: 사계절.

김현정(2015), “캔두코 무용단의 작품에 나타난 장애무용의 의미”, 한국무용예술학회, **무용예술학연구 57(6)**, 1-18.

류정아(2022),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 콘텐츠 구성 적응 전략 소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신의, 심규선, 주명진(2018),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을 통한 장애 예술의 개념적 연구”,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문화예술경영학연구 11(2)**, 39-61.

_____, 장웅조, 이민하(2020),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극복으로서의 ‘포용적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문화예술경영학연구 13(1)**, 9-35.

반호정(2015), “장애인무용공연작품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방향성”, 한국무용연구학회, **한국무용연구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2015**, 110-114.

- 배유나, 박수홍 (2022), “대학수업에서의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앙트러프러너십 교수-학습 모형 설계”, 한국 교육공학회, **교육공학연구 38(3)**, 815-867.
- 심미승, 박지현. (2016). “프로보노 지속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4)**, 211-223.
- 심정민(2023), “비평적 관점으로 본 장애인무용의 예술적 발전에서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의 역할과 과제”, 무용역사기록학회, **무용역사기록학 68**, 85-104.
- 안채린(2020), “혁신적 포용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문화정책에 대한 시론(試論)적 논의-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문화콘텐츠 연구 20**, 89-127.
- 이용숙, 김영천, 이혁규, 김영미, 조덕주, 조재식 (2005), **실행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이상민(2009).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스토리텔링 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경영학회, **예술경영연구 15**, 27-44.
- 이수곤(2018), “시각디자인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는 방식에 관한 고찰”, 한국일리스타트학회, **조형미디어학 21(3)**, 229-236.
- 이지영(2013), “국내 박물관·미술관 에듀케이터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 원경아(2009). “기초 디자인예술교육에 있어 스토리텔링에 기초한 창의력 학습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연구 10(4)**, 183-193.
- 유용식(2005),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제주도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3**, 141-172.
- 윤보경, 장웅조 (2021), “관객 다시 만나기: 비대면 공연참여 예술가에 관한 실행연구”, 한국무용학회, **한국무용학회지 20(4)**, 137-151.
- 장애우권의 문제연구소(2000), **한국장애인인권백서**, 장애우권의문제연구소.
- 전지영(2021), “장애예술과 장애인예술의 개념 논의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한국예술연구 (32)**, 195-215.
- 정병은(2016), “장애아동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2016**, 281-311.
- 정중은, 최보연 (2021), “장애예술단체 활성화 정책의 방향 모색: 영국의 정책 및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연구 12(2)**, 81-113.
- 조현성, 최보연, 정병은, 전동일, 김윤경(2020), **장애인 문화예술 증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현욱, 안미리 (2022), “메타버스와 XR기술을 활용한 운동 및 훈련 효과에 대한 문헌연구: 자폐, 우울, 지적장애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6(1)**, 95-98.
- 차지은(2022), “발달장애아동의 모방능력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무용과학회, **한국무용과학회지 39(3)**, 1-14.

홍혜전(2020), “장애무용교육 관련 연구동향을 통해 바라본 장애무용교육의 방향성”, 무용역사기록학회, *무용역사기록학* 56, 183-205.

Austin, s., Brophy, *Beyond Access: The Creative Case for Inclusive Art Practice Literature*
C. Temle A., Mac-
Review, Melbourne: Arts Access Victoria.

Dowall, L., Pater-
son, E. & Roberts,
W.(2015)

Chartrand, T. “The chameleon effect: The perception-behavior link and social inter-
L., Bargh, J.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6), 893-910.
A.(1999),

Creswell, J.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3rd ed.)*, Thousand Oaks,
W.(2012), CA:Sage.

Kemmis, S., *The action research planner (3rd ed.)*, Australia: Deakin University Press,
& McTaggart,
R.(1998),

Merriam, S. B.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2009), CA: Jossey-Bass.

www.nostringsattached.org.au

www.youtube.com/@user-on8sw1ws8u

<https://youtu.be/uQoVUdvqJvM> 검색일 2023.12.01

<https://youtu.be/PHLfL1Hrfbo> 검색일 2023.12.01.

<https://youtu.be/5GXqOCwY9SA?si=TDdBpqMylrzwMV4I> 검색일 2023.12.01.